‘가난 탈출’ 갈수록 어렵다… 가계 빚은 1000조 돌파

빈곤 탈출률 23.45%… 6년새 8%P 이상 떨어져

최저·최고소득층간 이동도 적어… 중산층 몰락 우려

매년 연초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은 해가 갈수록 가난에서 벗어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빚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드는 등 중산층 몰락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0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빈곤 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이었던 가구 가운데 해당 기간 중산층(50~150%)이나 고소득층(150%초과)으로 이동한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2005년에는 저소득층 가구 셋 중 하나가 2006년 살림이 나아져 중산·고소득층에 편입됐지만, 2011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넷 중 하나 정도만 2012년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다.

특히 1년 만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계층이 비약적으로 뛴 비율은 2005~2006년 2.53%에서 2008~2009년 1.43%로 낮아졌고, 결국 2011~2012년 기간에는 0.48%까지 추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사실상 ‘벼락부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도 2005~2006년 13.38%에서 2011~2012년 10.95%로 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적자가구가 이듬해 흑자로 전환되는 비중도 2005~2006년 66.08%, 2008~2009년 56.58%, 2011~2012년 54.46%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다.

아울러 1~8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체 9407가구 중에서는 35.35%가 8년(2005~2012년)동안 적어도 1년 이상 빈곤(저소득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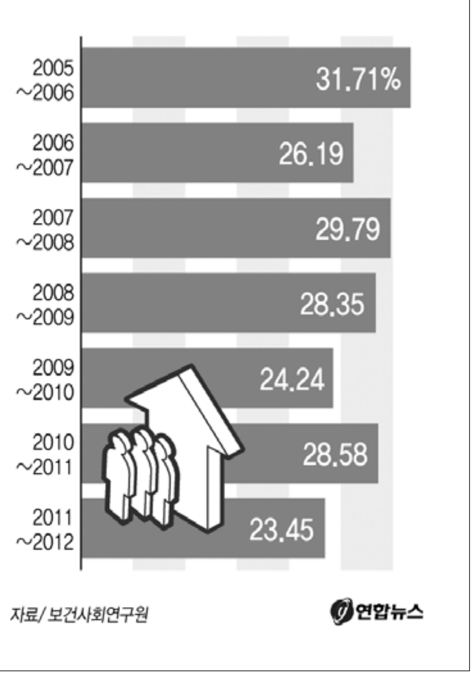
고용 형태도 ‘고착’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임시·일용직이었던 근로자 가운데 1년 사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9.97% 뿐이었다.

이와 함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가계 부채로 중산층이 줄어드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려는 한국 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계 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 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이 작년 9월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만 10~11월 9조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 특정 부문은 가계부채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인데 소득 증가가 따라주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계에 몰린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가 중산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아 연체에 몰리게 되면 중산층 몰락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융소득 年 4000만원 초과 5만6천명

서울이 절반… 호남은 2030명 3.6% 불과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호남은 광주와 전남·북 모두를 합쳐도 3.6%에 불과했다.

7일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4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5만5730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금액은 10조6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5만1023명이 총 10조274억원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8%, 금액은 4.3%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금융 자산가는 2011년 1만7537명에서 2012년에는 1만8257명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자산가도 3063명에서 3195명으로 4.3% 늘었다.

2012년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3195명의 총 금융소득은 5조4926억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전체 금융소득(10조6512억원)의 51.6%에 달했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의 서울 등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2012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만5730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49.4%인 2만7504명이나 됐다.

경기도(1만1527명, 20.7%), 인천(1722명, 3.1%)을 합치면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73.2%나 됐다. 부산(4127명, 7.4%), 대구(2241명, 4.0%)가 뒤를 이었고, 광주(841명, 1.5%), 전남(555명, 1.0%), 전북(634명, 1.1%) 등 호남권은 모두 합쳐도 3.6%에 불과했다.

지역별 평균 금융소득액도 수도권이 높았다.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금융소득은 1억9100만원이었지만 서울지역 신고자의 평균 금융소득은 2억3600만원에 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영화 ‘변호인’ 800만 관객 돌파

19일만에… 20일전후 천만 넘을 듯

‘7번방의…’ ‘아바타’ 보다 6일 빨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1981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이 개봉 19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 측은 개봉 3주가 지났어도 여전히 40%대의 매출액 점유율을 올리는 점에 비춰 오는 20일 전후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지난 6일 16만5788명(매출액 점유율 43.7%)을 모아 누적관객 802만5851명을 기록했다. 이는 25일 만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7번 방의 선물’(1281만 명)과 역대 최고의 흥행작인 ‘아바타’(1362만 명)보다 6일 빠른 속도다.

반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인 ‘괴물’(1301만 명)보다는 1일, 또 다른 1000만 영화인 ‘도둑들’(1298만명) 보다는 3일 늦다.

‘변호인’은 오는 2월 7일 LA 등 미국 15개 도시 30개 극장에서도 개봉한다.

‘변호인’은 1980년 초 부산을 배경으로 세무 변호사 송우석이 인생을 바꾼 시국사건 재판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연상시키는 주인공 송우석역의 송강호를 비롯해 김영애·곽도원·임시완 등 출연 배우들의 열연과 현 시국을 연상시키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3번씩 반복 관람하는 경우가 많아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황 방한 성사되면 8월이나 10월 될 듯”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7일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교황청에 방한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방한 여부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만일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 시기는 올 8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방한 여부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0월은 현재 교황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때이며, 8월에는 대전교구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일정이 잡혀 있다.

교황이 시복식 주재와 아시아 청년행사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방한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2014년 가을쯤 시복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992년 1회

2011년 1000회

2014년 1107회

위안부 할머니들의 22년간의 외침

1992년 1월8일 시작돼 이미 세계 최장기 집회 기록을 세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8일 22돌을 맞는다. 1992년 1월8일 시작한 수요집회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를 취소하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항의집회를 추모집회로 대신한 경우를 빼면 20년 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에 빠짐없이 이어져 왔다. 사진은 지난 1회 수요집회부터 올 1월 1일 열린 1107번째 수요집회. /연합뉴스